Heungkuk
흥국증권

자동차

2026.04.03

3 월 판매실적: 불확실성 확대 속 경쟁력 확인

자동차
마건우
02) 739-5939
kwma0330@
heungkuksec.co.kr

기아, 신차와 전동화가 만든 상대 우위

3월 현대차 내수 6.2만대(-2.0% YoY), 해외 판매 29.7만대(-2.4% YoY) 기록. 기아의 경우 내수 5.6만대(+12.8% YoY), 해외 판매 22.9만대(+0.4% YoY) 기록. 이에 따라 글로벌 판매는 현대차 35.9만대(-2.3% YoY), 기아 28.6만대(+2.7% YoY)로 집계되며, 역성장을 기록한 현대차 대비 기아의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부각.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환경에서도 기아가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나타낸 것은 EV5, PV5 등 신차 효과에 기반한 내수 판매 성장에 기인. 셀토스(3월 내수 소매: ICE 3,083대, HEV 1,900대) 역시 신차 효과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나, 판매대수 증가보다는 HEV 전환 수요에 따른 믹스 개선 효과를 기대. 한편 2026년 1분기 기준 가이던스 달성률은 현대차 23.5%('25년 24.0%), 기아 23.3%('25년 24.0%)로, 전년 대비 다소 아쉬운 수준을 기록.

친환경차 판매의 경우, HEV 도매판매는 현대차 66,554대(+27.7% YoY), 기아 58,897대(+38.5% YoY)를 기록하며 양사 모두 견조하게 성장. 반면 BEV 도매판매는 현대차 22,503대(-11.4% YoY), 기아 37,928대(+67.9% YoY)로 업체별 실적 차이 극명. 앞서 언급했듯, 이번 판매 성장은 주로 내수 시장에서의 전기차 신차 효과에 기인. 여기에 더해 유럽 내 구축된 BEV 풀라인업을 기반으로 EV2의 신차 효과가 가세하면서, BEV 판매 성장세를 견인한 것으로 판단. 기존 글로벌 BEV 판매 성장의 핵심 축이었던 미국 시장은 보조금 폐지 이후 지속적인 역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어, 현대자동차그룹 내 BEV 판매의 중심축은 사실상 유럽으로 이동 중. 이러한 관점에서 유럽 전기차 시장 내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는 기아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

미국 시장: 산업 수요 감소 속 점유율 확대

3월 미국 전체 자동차 시장은 140.6만대(-11.8% YoY)를 기록. 관세 인상 직전 수요 급증에 따른 높은 기저와 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시장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 현대차와 기아 역시 각각 9.2만대(-2.4% YoY), 7.7만대(-2.6% YoY)로 소폭 감소했으나, 시장 전체 감소폭 대비로는 상대적으로 선방한 모습. 이는 다시 말해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시장 점유율 상승을 의미하며, 3월 기준 점유율은 11.9%(+1.5%p YoY)로, 기존 시장점유율 3위 업체인 Ford와 유사한 수준까지 상승. 향후 미국 시장은 HEV 중심의 성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내 점유율 3위에 올라설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

다만 이러한 점유율 확대에도 불구, 현대차와 기아의 1분기 도매 판매는 당사 추정치를 각각 3.4%, 2.5% 하회. 이에 따라 양사의 1분기 실적은 기존 추정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 원/달러 평균환율이 기존 가정 대비 약 1% 상승했으나 판매량 감소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으로 판단하며, 기말환율 또한 전분기 대비 4.9% 상승함에 따라 판매보증충당금 재평가에 따른 수익성 하향은 불가피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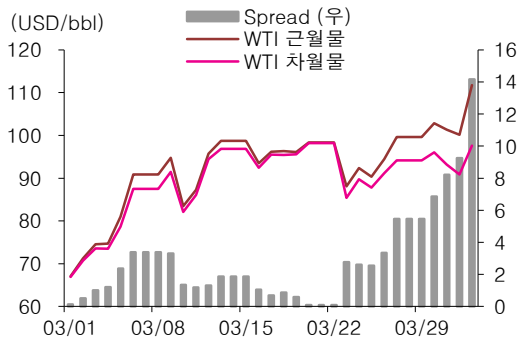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시장의 관심은 아직 미래 산업에

최근 중동 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시장 변동성도 재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 특히 미국과 이란 간 발언의 온도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단기 종전 기대보다는 분쟁 장기화 혹은 심화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이 점차 강화되는 중. 자동차 산업 역시 이번 분쟁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은 산업 중 하나. 고유가와 물가 상승은 실질 구매력 저하를 통해 글로벌 자동차 수요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물론 유가 상승이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중심의 친환경차 전환 수요를 일부 자극할 가능성은 존재하나,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전체 수요 둔화를 모두 상쇄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 아울러 운임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동반될 경우 완성차 업체의 비용 부담도 확대될 가능성 존재. 경쟁 강도가 높은 산업 특성상 이를 소비자 가격에 전부 전가하기는 제한적이기 때문.

호르무즈 해협 이슈에 따른 중동 지역 판매 둔화도 단기적으로는 부담 요인. 실제로 중동 지역 도매 판매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감소세에 진입하는 양상. 현대차의 AMEA 지역 도매 판매는 1.5만대(-43.6% YoY), 기아의 MEA 지역 도매 판매는 7,809대(-67.2% YoY)를 기록.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월부터 본격화된 점을 고려, 해당 지역 판매는 해협 재개방 이전까지 지속적인 감소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다만 현대자동차그룹의 전체 판매량 중 중동향 물량은 약 6~7%로, 제한적인 영향 내에 있을 것이라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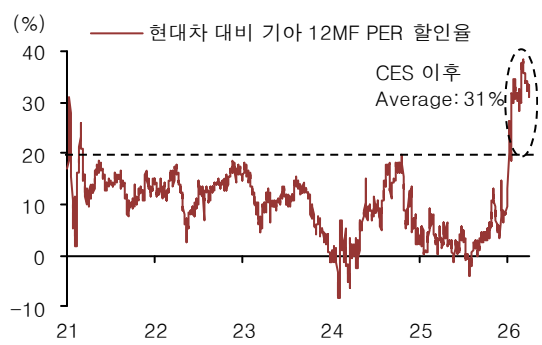
그럼에도 최근 자동차 섹터의 밸류에이션 축은 전통적인 완성차 본업이 아니라, SDV·로보틱스 등 미래 산업에 집중. 이를 고려, 현대자동차그룹의 중장기 성장 방향성 자체가 훼손됐다고 보기는 어려움. 특히, 오는 4월 9일 기아 CEO Investor Day에 주목할 필요. 해당 행사에 박민우 AVP 본부장 및 보스턴다이나믹스 개발 총괄 Jackowski가 참여 예정.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미래 산업 두 축의 담당자가 참여하는 만큼 CID를 통해 로보틱스 및 SDV 사업 계획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 해당 행사는 그룹의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 결국 행사 이후 시장이 미래 성장 서사에 계속해서 무게를 둘지, 아니면 단기 실적과 수요 둔화 가능성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지가 향후 자동차 섹터 주가 흐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판단. 아울러 시장이 지속적으로 미래 성장 서사에 주목할 경우, 자동차 본업에서의 상대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대차 대비 기아의 멀티플 할인 폭 역시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

그림 1 WTI유 선물 가격 추이



주: 가로축은 월/일을 기준으로 함
자료: Bloomberg,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현대차 대비 기아 12개월 선행 PER 할인율



자료: Bloomberg,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표 1 현대자동차그룹 3월 판매 실적

(대수)		26/03	25/03	YoY(%)	26/02	MoM(%)	26 YTD	25 YTD	YoY(%)
현대차	국내	61,850	63,090	-2.0	47,008	+31.6	159,066	166,360	-4.4
	해외	296,909	304,246	-2.4	260,886	+13.8	816,147	834,790	-2.2
	글로벌	358,759	367,336	-2.3	307,894	+16.5	975,213	1,001,150	-2.6
기아	국내	56,404	50,006	+12.8	42,002	+34.3	141,513	134,412	+5.3
	해외	228,978	228,079	+0.4	205,226	+11.6	636,527	637,406	-0.1
	특수	472	270	+74.8	396	+19.2	1,129	830	+36.0
	글로벌	285,854	278,355	+2.7	247,624	+15.4	779,169	772,648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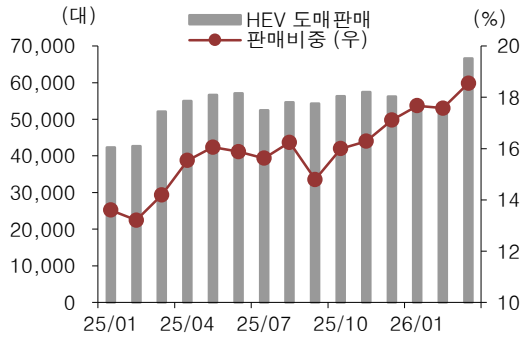
자료: 현대차, 기아,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표 2 현대자동차그룹 3월 친환경차량 판매 실적

(대수)		26/03	25/03	YoY(%)	26/02	MoM(%)	26 YTD	25 YTD	YoY(%)
현대차	HEV	66,554	52,135	+27.7	54,128	+23.0	175,196	137,075	+27.8
	PHEV	4,058	4,395	-7.7	2,453	+65.4	8,801	10,497	-16.2
	BEV	22,503	25,402	-11.4	21,954	+2.5	59,879	64,091	-6.6
기아	HEV	58,897	42,520	+38.5	42,275	+39.3	148,537	109,893	+35.2
	PHEV	1,751	5,633	-68.9	1,502	+16.6	5,366	14,766	-63.7
	BEV	37,928	22,595	+67.9	30,457	+24.5	88,231	56,347	+5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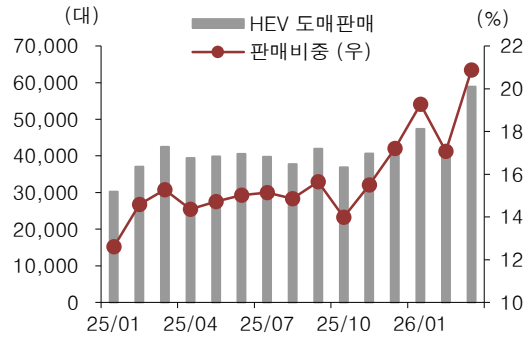
자료: 현대차, 기아,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현대차 HEV 도매 판매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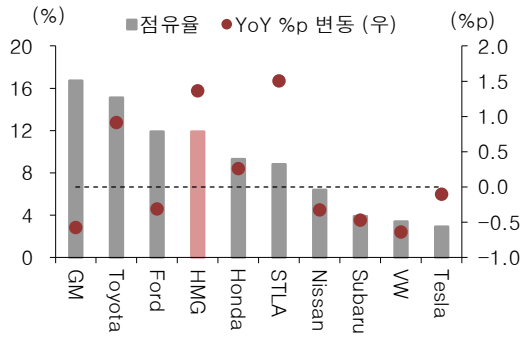
자료: 현대차,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기아 HEV 도매 판매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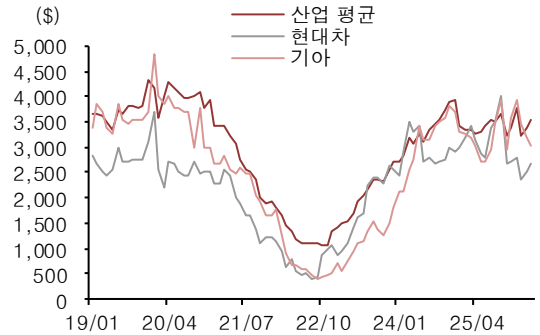
자료: 기아,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2026년 3월 OEM별 미국 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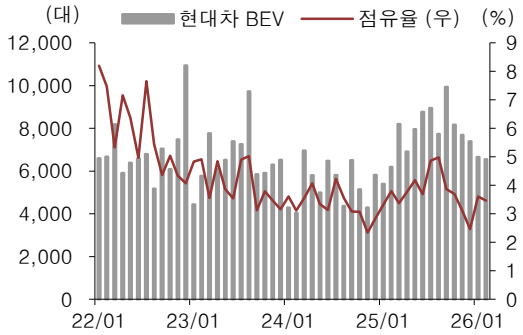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미국 인센티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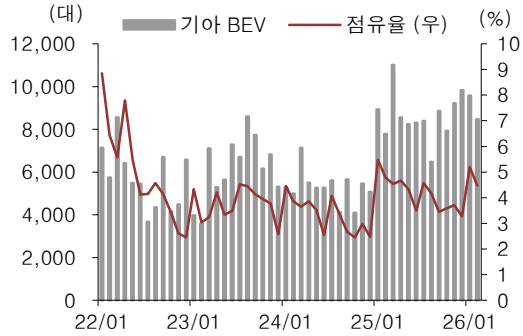
자료: Truecar,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현대차 서유럽 BEV 소매판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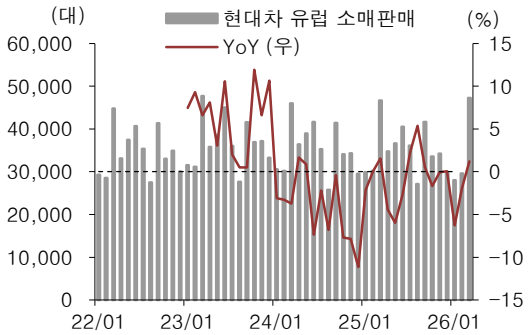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기아 서유럽 BEV 소매판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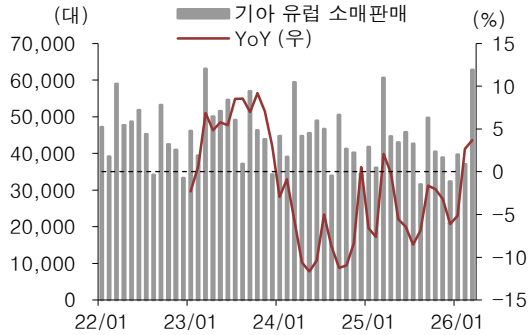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현대차 유럽 소매판매 추이



주: Europe Subsidiary 기준
자료: 현대차,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기아 유럽 소매판매 추이



주: Western Europe 기준
자료: 기아,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보고서 제공시점 현재 상기 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동 보고서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는 상기 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보고서 제공시점 기준으로 지난 6개월간 상기 종목의 유가증권 발행에 주간사로 참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보고서는 당사 고객들의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신뢰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보고서가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동의없이 무단 복제, 대여, 전송, 변형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흥국씨앗체

본 보고서에 사용된 흥국씨앗체는 흥국의 기업철학 모티브를 반영한 글씨체로서,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독일 '2015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커뮤니케이션 분야 브랜드 아이덴티티 부문 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친근하고 희망적인 느낌의 흥국씨앗체는 고객존중과 으뜸을 지향하는 흥국의 아이덴티티를 부각시킵니다.